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무등산·지리산 영향 관심

### 구례군, 타당성 용역 준비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의 확산 환경단체, 무등산서 환경부 규탄 시위... 난개발·생태계 파괴 우려

광주·전남의 대표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에서도 케이블카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원도 양양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40년 넘게 추진돼 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 규탄 시위를 진행하며 케이블카 사업으로 난개발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산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 등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 허용된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부터 강원도가 양양군 서면 오색리부터 설악산 끝청 하단(총연장 3.3km, 해발 1430m)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예정지는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사업 시행시 악영향이 우려되나, 계획 및 입지가 적정하지 않음'이라며 '부동의' 의

견을 통보했지만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해 인용받으면서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완료됐다.

이처럼 설악산 케이블카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광주·전남 시군에서도 다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꺼내 들고 있다.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 2021년 11월 환경부에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랜드부터 지리산 우반대까지 3.1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신청했지만, 환경부는 2022년 6월 구례군의 계획을 반려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지나는 지역의 반달가슴곰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지리산 권역 4개 지자체(구례, 전북 남원, 경남 산청, 경남 함양)와 단일화하지 않고 구례군 단독으로 신청한 점을 이유로 반려했다. 구례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계기로 올해 다시 한번 케이블카 사업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케이블카의 노선 등을 전면 수정해 현재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을 공고 중이다"며 "용역기간은 10개월로 예상하지만 최대한 빨리 당겨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확산되면서 환경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립공원무등산지킴이시민연대와 설악산 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 100여 명



국립공원무등산지킴이시민연대 등 환경단체 100여명이 '국립공원의 날' 행사가 열린 지난 3일 무등산 국립공원 도로에 드러누워 환경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은 지난 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환경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환경부가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허가했다"며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은 국립공원 측의 설명이지만, 2006년부터

잇힐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고 있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재점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산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주요 봉우리는 피하고,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하는 조건 등이 달려 있다"며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무등산에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영산강유역환경청 6월까지 토양 오염도 조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지역의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남지역 토양 측정지역 158개소를 대상으로 오염추세를 파악해 토양 오염예방 등 토양 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3월부터 6월까지 토양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벤조피렌, 벤젠, 톨루엔 등 유기화합물을 분석하고, 그늘진 곳에서 건조시킨 토양에 대해서는 카드뮴, 수은, 납 등 금속류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관내 토양측정망 지점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었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토양측정망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토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광주환경운동연합 화요강좌 '가뭇·기후재난' 정책 모색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가뭇과 기후재난'을 걱정하는 이들을 위한 화요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호남 지방에 가뭇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물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김종일 전남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광주전남 물 문제, 물 자립과 물 순환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으로 총 세 개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강의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된다. 대면 강좌는 선착순 20명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참가신청 및 프로그램 문의는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에 하면 된다. /전홍희 기자 strong@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받아오  
광주시 남구 공무원들이 7일 남구청 보건교육실에서 조산대 응급의학과 및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단 소속 전문가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 2024년까지 한시적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장애인 고용 시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신규 고용을 유도해 장애인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시노동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했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상시노동자 5~32명의 경우 1명, 33~49명의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만약 새로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가 다수일 경우 단가가 높은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고용장려금을 받았던 사업체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월·분기 별 고용 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뒤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장려금 신청 및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액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6개월 고용 유지 기준(월 단가×6개월) 경증 남성은 210만원, 경증 여성은 300만원, 중증 남성은 70만원, 중증 여성은 90만원이다.

만약 고용유지 기간 중 신규고용 장애인 노동자가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해당 월의 상시노동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달은 유지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개월 수만큼 더해 고용을 유지한다. 노동자가 퇴사했을 경우 역시 재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유지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www.esingo.or.kr) 또는 팩스(050-3470-0151),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광주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김지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기업지원부장은 "지난해 신규고용을 실시하고도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공단에 연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장애인 고용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kdi@kwangju.co.kr

## 서구 '우리동네 고독사 예방관' 1인가구 대상 방문·관리 나서

광주시 서구 주민들이 '고독사 예방관'으로 변신한다. 광주시 서구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2023 우리동네 고독사 예방관'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6일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우리동네 고독사 예방관 발대식을 열고 각 동에서 선발된 108명의 고독사 예방관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구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을 전문가로 양성,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활동은 7일부터 시작되며 서구 관내 2300여명의 위기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유연재 기자 yjyou@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